

추모식사

권이혁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오늘은 古下 先生님께서 誕辰하신지 116周年이 되는 날입니다. 언제나와 같이 선생님의 遺業과 遺德을 기리기 위해 많은 人士들이 이 자리에 參席하고 계십니다.

先生님께서 이룩하신 業績에 關하여는 前東亞日報 理事이신 張辛勳 新聞發展委員會 委員長님께서 略傳奉讀을 통해 자세하게 報告하셨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內賓께서 熟知하고 계신 까닭에 더 붙일 말씀이 없습니다. 張委員長님에게 感謝말씀 올립니다.

저는 古下精神에 關하여 가끔 나름대로 解釋을 하고 있습니다. 古下 精神은 先生님의 慎重性·豫見性·自立性·自主性으로 集約된다는 것이 저의 所見입니다. 先生님의 慎重性은 生前에 取하셨던 言行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시는 慧眼은 오늘 날에도 우리들이 우러러보고 그리워합니다. 先生님께서서는 自主성과 自立성이 重要하고 때로는 實利성이 必要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려 주셨습니다.

自由民主主義를 建國 創業의 理念으로 밝히시고 偉大한 經世方略과 治世精神을 펼치신 先生님의 가르치심은 언제나 眞理이고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길의 羅針盤이 되고 있습니다. 光復을 맞아 先生님께서서는 참으로 눈부신 活動을 하시면서 解放政局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政局의 變化에 따라 韓國民主黨이 創黨되고 先生님께서서는 首席 總務에 추대 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東亞日報가 重刊되어 先生님께서서는 세 번째로 社長이 되셨습니다. 이리하여 先生님께서서는 言論 活動과 政治一線에서 解放政局을 풀어 나가면서 나라 세우기를 指揮하시다가 高邁한 55歲의 生涯를 마감하셨는데 이미 61년 이라는 歲月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先生님에 대한 欽慕의 精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大韓民國의 建國 理念을 理解하지 않으려는 一部 傾向은 光復以來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있어 왔습니

다마는 古下精神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先生님, 저는 해가 바뀔 때 마다 제 나름대로의 話頭를 내세우는 버릇이 있습니다. 올해의 話頭는 "餘裕綽綽합시다" 입니다. 저는 이 話頭를 說明할 때마다 古下精神을 言及합니다. 餘裕綽綽한 精神은 서두르지 않고 沈着하며 의연한 자세를 보이는 精神이라고 저는 解釋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精神의 所有者에게는 創造성과 企劃성이 있고 일단 決心하면 100퍼센트 推進力을 발휘하여 생각한 바를 實現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解放直前に 政權을 引受해 달라는 네 차례에 걸친 朝鮮總督의 간청을 물리치고 解放政局에서 海外에서 還國하신 同胞들을 接待하기 위해 東奔西走 하시는 渦中에서도 建國創業의 理念을 밝히시고 國民의 삶의 質을 向上시키고 文化國家를 세우려는 經世方略과 治世精神을 펼치시던 先生님이야말로 대표적인 餘裕綽綽한 人物이시기에 可能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古下精神을 한마디로 餘裕綽綽한 精神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1世紀는 바로 古下精神을 要求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서 서너 가지를 報告하겠습니다. 첫째는 西原大學校 總長이신 孫文鎬박사께서 '古下 宋鎮禹先生의 獨立鬪爭路線'이라는 題目으로 追慕講演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政治學者이신 孫總長님 講演에 期待하는 바가 크며 이 자리를 빌려 感謝말씀을 올립니다.

둘째로는 많은 분들이 우리 紀念事業會를 돕고 계십니다마는 특히 先生님의 遺志를 받들어 東亞日報를 健實하게 이끌고 계신 金學俊사장님과 紀念事業會일을 自身の 일과 같이 情熱을 다해 도와주고 계신 金暢植前長官님에게 感謝를 올리는 바입니다. 또한 上海臨時政府의 제 2代 대통령을 지내신 朴殷植先生님의 孫子이시고 中國黃浦軍官學校를 卒業하고 20年동안 中·日戰爭에 참가하셨다가 光復 後 歸國하셔서 國軍 創設에 이바지하셨고 1959년 陸軍少將으로 退役하신 후 제 5代 光復會會長을 지내신 바 있는 朴始昌先生님의 令息이신 朴維徹國家報勳處長께서도 언제나 우리 紀念事業會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報告드립니다.

셋째로는 先生님의 宗孫인 宋相現박사에 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前에도 報告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宋박사는 2003年 2月 4日 뉴욕 UN本部에서 國際刑事裁判所 初代 判事로 選出되어 活躍하고 있는데 3年 任期를 마치고 지난 1月 26日 9年 任期의 2代 判事로 再選되었다는 事實을 報告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宋박사는 작년 12月 8日 우리나라 産業資源部 貿易委員會 委員長으로 委囑되어 그야말로 超人間的인 活躍을

하고 있습니다. 勤務地인 헤이그에서 서울을 오가며 世界の 司法과 平和를 爲해 盡力하는 한편 貿易委員會 委員長으로서 大韓民國 發展에 몸 바치고 있는 宋박사는 놀라운 人物이라고 아닐 할 수 없습니다.

先生님, 心慮를 끼쳐 올려서 송구합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들을 계속 돌봐 주시기를 祝願하면서 追慕의 人事를 마치겠습니다.

2006. 5. 8.

紀念事業會 理事長 權彝赫 올림